

가사 노동자를 중재 프로그램

가사 노동자를 중재 프로그램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중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방법입니다.

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예약을 하시려면 OLPS@dcwp.nyc.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
참여 대상

- 가사 노동자를
(보모, 청소부, 기타 간병인 등 뉴욕시의
개인 가정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)
- 가정의 고용주
- 중재자
(시에서 제공)
-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(Department of Consumer
and Worker Protection, DCWP) 변호사

다루는 사항

다음과 관련된 직장 문제를 위해 중재합니다.

- 미지급된 임금
-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
-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
- 보복 행위



계속 >

중재 절차

DCWP 직원은 **노동자** 및 **고용주**와 면담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
- 직장 문제를 파악함
- 노동자 및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줌
- 정보 및 문서 수집함
- 중재가 올바른 방법인지 결정하도록 지원함

중재는 자발적입니다. 노동자와 고용주가 모두 중재에 동의하면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(NYC 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) 산하 창의적 갈등 해결 센터(Center for Creative Conflict Resolution)의 독립적인 **중재자**가 노동자 및 고용주와 협력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. DCWP 직원과 노동자 또는 고용주 대표도 중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중재 장소

일반적으로 중재는 Center for Creative Conflict Resolution, 66 John Street, 11th Floor, New York, NY 10038에서 진행됩니다.

중재가 중요한 이유

- 무료입니다.
- 기밀입니다.
- **이민 상태와 상관없이** 모든 가사 노동자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법원 소송보다 **덜 공개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으며 해결 속도가 빠릅니다.**
- 중재자는 **공정하고 객관적인** 과정을 보장합니다.

NYC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



가사 노동자를 중재 프로그램은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와 행정심판청문사무국 산하 창의적 갈등 해결 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.